

2025년 7월 11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370장	다	함	께
기 도	권인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1:1~4	인	도	자
찬 송 십자가	새벽찬양대		
설 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438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 담당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4(월)
이철용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권인영 안수집사	전종우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 오늘의 말씀 < 요한일서 1:1~4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 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고구절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7월 11일(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나눔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쉼터와 같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 병가 중이신 담임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와 마음이 모두 새 힘을 얻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쟁 사회 속에서 힘겨워하는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새문안의 모든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